

□ 기획연재 □

한국정보과학회, 어제를 돌아보며 내일로(11)

우리는 거품이 없는가?

서울대학교 이석호*

우리 학회는 누가 무어라 해도 과거 4반세기 동안 눈부신 발전을 하였다. 5,000여명이 넘는 회원, 15개의 전문 분과 연구회, 3개의 지역 지부, 춘추제로 일년에 두 번씩 쏟아지는 학술 논문들, 그 뿐인가 3종류의 논문지에다 학회지, 전문 분과 연구회마다 발행하는 연구회지 등등은 양적인 발전의 척도로 삼을 충분한 근거가 되고도 남는다. 그야말로 공룡학회로의 문턱에 다다른 셈이다.

그동안 논문지 편집위원, 평의원, 편집위원장, 부회장, 그리고 회장의 직분을 수행하는 동안 나름대로 학회의 살림과 운영에 관여하였기에 학회의 성장과 발전에 회로애락을 같이 하여 왔다고 믿고 있다. 나는 늘 학회는 어디까지나 학회다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왔다. 학회는 모름지기 같은 전문 분야의 사람들이 학술 활동을 증진하고 상호 친목과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크게는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요람이라 생각한다. 지금까지 우리 학회는 이런 측면에서 별 문제없이 발전하고 성장하여 왔다. 그러나 학회 규모가 양적으로 비대해지고 정보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된 정보화 사회에 대비하여 앞으로의 학회 발전 방향을 재점검해 볼 시점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비단 다른 학회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도 시의적절하게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연하다 하겠다. 특히나 작금의 IMF 경제체제 하에서 학회의 건전한 재정적 밑받침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거품이 없는지, 있다면 어떻게 제거하고 무엇을 보완해 나가야 될 것인가를 심도 있게 연구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평소에 생

각하던 몇 가지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회장 선거 제도의 개선이다. 지금까지는 학회 회장을 평의원회에서 선출하고 있다. 그러나 평의원회 자체가 문제다. 학회 정관에는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평의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초창기 전체 회원이 얼마 되지 않고 최대 40~50여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될 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의미가 다르다. 이 평의원회가 어떤 부류의 회원의 의견을 대표하는지 아니면 어떤 지역적 대표성이 있는지 그 특성이 결여되어 있다. 최근 몇 년간의 평의원회를 참석해 보면 성원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그러나 회장 선거를 하는 평의원회는 전세버스를 동원해서까지 평의원을 동원시켜 대성황을 이루는 학회 초유의 선거작전(?)까지 연출된 적이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학회 출판물에 발행인으로 등록조차 못하는 회장이 선출되는 전대미문의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또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은 곧 평의원회가 회장 선출에만 관심이 있다는 증거다. 그렇다면 차라리 회장 선거를 위한 회장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뽑거나 아니면 직접 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 대신 학회의 중요 업무는 회원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게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처리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본다. 현재 이미 이사회가 50명이 넘는 이사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세한 사항은 기술하지 않겠지만 현 평의원 제도의 문제점은 자칫 학회 발전의 무익유해하게 될 지 모른다는 우

*중신회원, 한국정보과학회 제12대 회장

려에서다.

두번째는 학회 논문지 발간 정책을 개선하여야 한다. 옛부터 회원들의 불만 가운데 하나는 논문지의 논문 심사와 게재에 관한 것이다. 초창기에는 게재할 논문이 제대로 수집되지 않아 애를 먹었는데 이제는 논문 제출 편수와 게재 편수의 높은 비율, 그리고 논문심사기간의 장기화에 따른 불만으로 타학회 논문지로의 유출이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논문지는 3종류이지만 일년 총 게재 편수는 360편에 불과하다. 이것은 인접 학회가 하나의 논문지로 300여편을 넘게 소화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실속이 없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비효율적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심사 기간을 더 단축하고 논문 심사 제도 자체를 혁신하여야 하며 게재 논문수도 신축적이어야 한다. 한 권의 논문지에 게재해야 할 논문 편수가 10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 또한 무성의한 심사위원 한 사람의 심사 결과를 무한정 기다릴 필요도 없다. 논문 심사 의뢰를 받으면 곧바로 심사에 들어가게 되어야 한다. 여유가 있어 책상 위에 올려 놓게 되면 바로 이것이 심사 지연의 씨앗이 된다. 심사 기간을 오래 준다고 반드시 평가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차체에 학회 논문지를 SCI에 등재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국제적 수준의 논문지로 발전시키는 노력도 해야 할 것이다.

세번째는 춘추계 학술발표대회 운영을 혁신하여야 한다. 600여편이 넘는 논문을 하루에 모두 발표하느라 30여개의 발표장을 확보하는 것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된다. 더구나 발표자만 있고 청중이 없는 발표장이 속출한다니 조속히 시정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의 문제점은 여러 면에 기인한다고 본다. 노학자와 중년학자 그리고 청년학자의 구별이 없다. 이제 막 부임한 조교수나 정년을 얼마 앞둔 노교수나 행동면에서 차이가 없다. 또한 규모가 커지다 보니 각 개인의 중요성이 떨어지고 그러다보니 참여 의식이 결여되어 규모는 큰데 사람이 없는 과장 학술 발표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차라리 석사 논문 종합심사장이 되던지 아니면 박사 논문 심사회로 만드는게 어떨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이것은 학회로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면서 심각한 문제이다.

네번째는 전문 분과 연구회와 지부의 학술 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회원이 많아지면 학회 활동 참여 기회가 적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반대로 회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만 학회가 발전되고 성숙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연구회와 지부의 학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회의 논문지, 지부의 논문지 발간을 제도적으로 활성화시켜 회원의 참여도를 높이고 논문지와 학술 발표회 문제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학회 운영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학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기회를 확장하고 논문지를 다양화하여 회원의 수준에 맞는 학술 활동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의 척도로만 평가하는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탈피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건전한 자립 재정을 위해 노력을 해야겠다. IMF 경제시대를 맞아 기업이 허리띠를 동여매고 정부가 긴축 재정을 하는 마당에 외부로부터의 재정지원은 점점 어려워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차체에 우리 학회 사업에 대해서도 더 조직적이고 더 효율적이 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외부의 찬조금이나 지원금에 의존하는 부분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내실있는 균형 예산을 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우리 학회를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국가 발전을 위해서도 술선해서 추구해야 될 줄 안다.

이상 몇가지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것은 모두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밀접히 연관된 문제들이다. 최근 유사 학회의 난립으로 인한 전문인 간의 소원한 관계도 이런 문제 해결이 제대로 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지금의 집행부는 앞으로 또 한해의 학회 운영 기회가 있다. 내일을 위한 학회를 위해서 “학회 제도 개선 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여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걸맞는 학회로서 발전할 수 있도록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였으면 한다. 단순히 연륜만 많아지는게 자랑이 아니다. 우리도 이제 거품과 허식을 빼고 정보화 사회에서의 학회답게 발전하도록 모두 노력할 때다.